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간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gnition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and Library Anxiety

오 의 경(Eui-Kyung Oh)*

목 차

- | | |
|--------------------------|-------------------------------|
| 1. 서론 | 4. 데이터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4.1 응답자 기초 통계 |
| 2.1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측정 연구 | 4.2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기초 통계 |
| 2.2 심리 환경적 요인과 도서관 불안 연구 | 4.3 도서관 불안 기초 통계 |
| 3. 연구 방법 | 4.4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 |
| 3.1 측정도구 | 5. 결론 및 제언 |
| 3.2 데이터 수집방법 | |
| 3.3 데이터 분석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99명의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은 3.72점, 도서관 불안은 2.47점으로 조사되어, 이전 연구들과 유사하였다.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은 의미 있는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r=-0.493$, $p<0.05$),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한 도서관 불안요인으로는 '정보접근 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 '정보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이 제시되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정보활용능력 수준과 도서관 불안 점수 둘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적인 배경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서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보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더욱 다양하고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심리 테스트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gnition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SCLIL) and library anxiety(LA). SCLIL was 3.72 point, LA was 2.47 point, and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SCLIL and LA are correlated each other significantly($r=-0.493$, $p<0.05$). Higher SCLIL leads to lower LA. Also, the study found the main factors of LA was lack of methods to access information', 'lack of confidence in evaluating the information's relevance.' For those who are going to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t is found that they have less LA and lower SCLIL compared to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is shows a tendency to downplay their own abilities, while tending a more positive image of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use social and psychological standard tests in order to elaborately and diversely reflect individual information user's psychological aspect.

키워드: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도서관 불안,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안락함
Information Literacy, Self-Cognition of Information Literacy, Library Anxiety, LAS(Library Anxiety Scale), Barriers with Staff, Affective Barriers, Comfort with the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교수(ohspace@paran.com)
논문접수일자: 2011년 10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1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23-137,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123]

1. 서론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가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므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보는 다양한 형태와 질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정보접근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이러한 정보환경들은 정보이용자에게 각종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필터링의 문제, 정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보이용 상의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은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심리적인 경향을 도서관 불안(library anxiety)이라고 하는데, 도서관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생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므로, 도서관 불안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도서관 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도서관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개발, 도서관 불안의 측정, 도서관 불안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들과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

경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양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인차가 존재하는 정성적인 요인들과의 관계 분석들로, 개인이 갖는 성향이 도서관 불안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불안과 관련하여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스스로 평정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을 도서관 관련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적인 관심·지식이 도서관 불안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문헌정보학적인 관심·지식)과 도서관 불안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관계성 있음이 입증되면,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세부 요인들 별로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들의 영향력의 정도는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비중,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기기와 환경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과거보다 정보기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복잡하고 빠른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는 더 많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 요인을 밝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면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도서관 불안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측정 연구

정보활용능력 측정은 그 실제적인 기술적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정보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정보 이용자 자신이 평가하는 인지 수준'을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Neely(2000)는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학 정보이용자들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것은 '노출(exposure,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유형과 그 참여 빈도)', '경험(experience,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및 서지도구들에 대한 이용 경험의 정도)', '교수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faculty,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수진으로 받은 영향력의 정도와 유형)', '태도(attitude,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태도)', '수행능력(performance, 실질적 정보문제해결능력)'이며, 이 중 자가진단과 관련된 요인은 '태도'이다. 측정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태도'에 해당하는 9의 세부 영역별로 이루어졌다. 9개의 세부 영역 대부분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정보활용능

력 태도 점수가 4점 이상이라고 답하여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Maughan(2001)은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Teaching Library에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4학년 학생들 대상의 정보활용능력 평가 결과를 시간의 경과를 두고 분석하였다. 평가항목 중에는 도서관 기술(library skill)에 대한 자가진단 항목이 있었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도서관 기술이 우수하거나 대체로 좋다고 하였다.

Kurbanoglu(2003)는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적용하여 Hacettepe University의 정보관리학과 1학년부터 4학년 179명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과 컴퓨터리터러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정보활용능력 관련 89문항, 컴퓨터 리터러시 관련 18문항이 측정되었는데, 정보활용능력과 컴퓨터리터러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대체로 높았다.

오의경(2005)은 Neely(2000)의 측정도구를 응용하여,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일부로 정보활용능력 태도에 관한 측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의 측정 점수를 얻었다.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Neely(2000)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의 점수이며, 학년, 전공, 도서관이용교육 형태 및 횟수 등에 따라 개인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정보이용자 스스로가 평가한 인지 수준의 측정은 시도되어 왔으나, 도서관과 정보의 이용 그리고 정보활용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2.2 심리 환경적 요인과 도서관 불안 연구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도서관 불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측정 도구로,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도서관 불안을 측정 한 후,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측정점수를 통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 환경, 완벽주의(perfectionism), 자기인식(self-perception), 학술활동 지연 성향(procrastination), 학습습관 사회적 상호의존성 등이 도서관 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Onwuegbuzie and Jiao 1998a; Jiao and Onwuegbuzie 1998; Onwuegbuzie and Jiao 2000; Jiao & Onwuegbuzie 1999a; Jiao & Onwuegbuzie 2002). 이러한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성향들은 도서관 불만의 초기 연구인 Mellon(1986)의 연구에서 밝혀진 도서관 불만의 원인 - 도서관에 대한 지식 부족, 지식부족에 대한 상대적인 무능력, 열등감 - 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불안은 자기인식, 성별, 학습수준, 학습 형태, 완벽주의, 학술활동 지연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과 도서관 불안 측정 척도들을 조합하여 분석하면, 도서관 불만이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Onwuegbuzie and Jiao 2004).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분석은 도서관 불안이라는 도서관 이용 상의 감정적인 문제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치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이나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측정과 도구개발에 주력해 왔고,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성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지식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정보활용능력과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요인인 도서관불안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측정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 불안 측정을 위한 것이다.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의경(2005)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활용능력 인식 태도 11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활용능력 하부 영역의 준거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미국대학 및연구도서관협회(2000)의 5가지 표준안에 대한 인식 태도 측정을 목표로 제작되었고, 널리 알려진 정보지식인에 대한 Doyle(1992) 10가지 특성을 주요 측정 요소로 설정하였다. 10가지 특성 중에서, 세 번째 특성인 '정보 요구를 바탕으로 질문을 공식화 한다'와 네 번째 특성인 '성공적인 탐색 전략을 개발한다'는 탐색전략 수립에 관한 것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특성을 하나로 합쳐서 모두 9개의 특성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Doyle(1992)의 10가지 정보지식인의 특성은 미국대학및연구도서관협회(2000)의 5가지 표준안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윤리 영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정보

윤리에 대한 인식 태도를 측정요소로 추가하기 위하여, 저작권과 인용에 관한 인식태도를 측정요소로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11개 항목이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측정 항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측정요소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측정요소
1.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한다.
2.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3. 정보원을 이해하고 있다.
4. 탐색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5. 다양한 정보의 접근방법을 알고 있다.
6.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7.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8.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계로 통합, 정리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0. 인용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준수하고 있다.
11. 저작권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함을 알고 있다.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들은 Bostick(1992)의 LAS(Library Anxiety Scale) 이후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수정, 개발되어 왔다(Van Kampen 2004; 남태우, 박현영 2006; 박주범, 정동열 2010). 그러나 본 연구는 Bostick(1992)의 LA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정보기술이나 정보환경 요소를 도서관 불안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정 이전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복수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LAS는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 장벽의 다섯 영역을 측정하는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항들 중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에 관련된 영역만 측정하였다. 영역 간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32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도구로 설정하였다.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영역에서는 사서/학생보조원과의 의사소통, 접근 시 발생하는 어려움, 사서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측정하였고, 정서적 장벽 영역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 도서관 이용의 즐거움, 도서관의 중요성 등을 측정하였고, 도서관의 안락함 영역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쾌적함, 편리함, 안전성 등을 측정하였다.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측정과 도서관 불안 측정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의 경우 인지 수준이 높은 순으로 1점부터 5점으로 부여하게 되며, 도서관 불안의 경우는 불안이 높은 순으로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게 된다.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두 가지 유형의 측정 항목 외에도, 정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항목들, 즉 도서관 방문 횟수, 홈페이지 접속횟수, 도서관이용교육 경력, 성별, (앞으로 선택할) 전공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3.2 데이터 수집방법

조사는 A대학교 인문학부 1학년에 재학 중

인 9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학교 규정상 '국문학'과 '문헌정보학'이고 잠정적으로 전공 지원에 대한 선택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문헌정보학 전공기초 2과목(6학점)을 이미 수강하였고, 2011년 9월 26일 현재 2과목(6학점)을 수강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는 학생들을 표집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표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본 연구가 이용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면면들을 정보이용이나 도서관 불안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에 대한 동등한 기초지식을 갖고 있으나 문헌정보학을 미래의 직업이나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갖는 심리 상태는 다를 것을 전제로,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결과가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26일, 이들에게 두 가지 측면(정보활용능력, 도서관 불안)의 측정 항목이 제시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100% 회수되었고, 99부 모두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3.3 데이터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4.0 K for windows』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선택예정)전공, 도서관이용에 관한 기초통계를 산출하였고, 응답자의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점수와 도서관 불안 점수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조사된 점수를 바탕

으로 정보활용능력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선택 예정) 전공에 따라 정보활용능력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T-검정)을 수행하였다.

4. 데이터 분석

4.1 응답자 기초 통계

응답자는 모두 99명이었으며, 이들 중 여성이 66명, 남성이 33명으로, 각각 전체의 66.7%, 33.3%를 차지하였고, 전공별로는 문헌정보학을 선택한 학생이 51명(51.5%), 국문학을 선택한 학생이 43명(43.4%), 기타 학생이 5명(5.1%)이었다. 도서관 방문횟수에 있어서는 1주일에 1번 이하 방문이 48명(48.5%), 1주일에 2-3번 방문이 33명(33.3%), 1주일에 4-5번 방문이 11명(11.1%), 1주일에 6번 이상이 6명(6.1%)으로, 응답자의 80% 이상이 주 2-3회 이하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횟수에 있어서는 47명(47.5%)이 1주일에 1번 이하, 44명(44.4%)이 1주일에 2-3번, 6명(6.1%)이 1주일에 4-5번, 2명(2.0%)이 1주일에 6번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주 2-3회 이하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81명(81.8%)의 응답자가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정보활용능력 인식 수준 기초 통계

각 세부 영역별 측정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정보활용능력 평균점수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측정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점수는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구(오의경 2005)에서 전 학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정보활용능력 태도 점수 3.72점과 같은 결과이다. 학년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유사한 점수가 산출되었으므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인용에 대한 이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정보원 이해나 탐색전략 수립 등 도서관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에 대한 자가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색전략 수립에 대한 측정 점수는 3.22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이전 연구인 오의경(2005)의 연구, Neely의 연

구(2002)에서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한 항목은 높은 측정 점수를, 기술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측정에서는 낮은 측정점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선택할 전공이 문헌정보학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정보활용능력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학부에서 전공기초 과목으로 문헌정보학 영역의 강의를 2과목, 6학점 이수한 상태이며, 현재 2과목 6학점을 수강 중이 상태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적인 지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관심이나 호감도가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가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두 집단은 유사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을 갖는다고 추정

<표 2>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기초통계

측정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인식	2.00	5.00	4.03	0.89733
정보의 필요성 인식	2.00	5.00	4.42	0.71558
정보원 이해	2.00	5.00	3.24	0.71558
탐색전략 수립	1.00	5.00	3.22	0.70791
정보접근 방법	2.00	5.00	3.70	0.74901
정보의 적합성 평가	2.00	5.00	3.65	0.78653
정보의 체계적 정리	2.00	5.00	3.60	0.74120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계로 통합, 정리	2.00	5.00	3.52	0.73351
정보이용	2.00	5.00	3.63	0.75032
인용	2.00	5.00	4.29	0.90636
저작권	1.00	5.00	3.47	1.18100
전체	2.64	4.91	3.72	0.43476

〈표 3〉 전공 선택별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기초통계

정보활용능력 인식 수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	2.91	4.82	3.69	0.42749
국문학 전공 예정자	2.73	4.91	3.76	0.42171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자신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에 대하여 더욱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도서관 불안 기초 통계

도서관 불안은 모든 측정 요소 평균 2.47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던 이전 연구인 장혜란과 오의경(2006) 연구의 불안 점수 2.55점, Bostick(1992) 연구의 2.64점보다 낮아 불안 수준이 이전 연구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서관과 정보이용에 대한 친숙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Jiao and Onwuegbuzie (2002, 2004) 연구의 2.29점보다는 본 연구의 불안 점수가 높아서, Jiao and Onwuegbuzie (2002, 2004) 연구의 응답자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학부 1학년생이 갖는 도서관 이용이나 정보를 다루는 기술 및 자신감이 대학원생들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세부 영역별 기초통계는 〈표 4〉와 같다. 세부영역별로 불안 점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직원으로 인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혜란과 오의경(2006) 연구와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별 불안점수를 비교해 보면,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의 점수는 2.49점으로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안락함,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두려움의 순이었다. 직원의 과도한 업무량, 사서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학생들의 무능력과 무지로 인한 두려움 등이 직원과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안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4.1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가 다른 전공 예정자보다 도서관 불안감이 더 큰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대체로 문헌정보학 전공 선택 예정자들이 도서관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표 4〉 도서관 불안 기초통계

측정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staff)	1.17	4.58	2.49	0.44286
정서적장벽(affective)	1.17	3.83	2.43	0.50932
안락함(comfort)	1.13	3.50	2.46	0.49964
전체	1.19	3.72	2.47	0.49257

〈표 5〉 전공 선택별 도서관 불안 기초통계

도서관 불안 수준	세부영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staff)	1.17	3.33	2.44	0.55186
	정서적장벽(affective)	1.33	3.17	2.36	0.46077
	안락함(comfort)	1.13	3.38	2.48	0.52124
	전체	1.38	3.19	2.42	0.46153
국문학 전공 예정자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staff)	1.17	3.67	2.51	0.60693
	정서적장벽(affective)	1.17	3.83	2.50	0.54342
	안락함(comfort)	1.25	3.25	2.42	0.45778
	전체	1.19	3.34	2.48	0.49372

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4.4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

과연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서관 불안도 감소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보이용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신감은 도서관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제로 분석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0.3 이상일 때(혹은 음의 상관관계 계수 -0.3 이하일 때)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간주한다.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간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가

〈표 6〉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상관관계 분석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안락함	전체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인식	-0.065	-0.050	-0.170	-0.093
정보의 필요성 인식	-0.258 *	-0.118	-0.250 *	-0.234 *
정보원 이해	-0.232 *	-0.253 *	-0.205 *	-0.274 *
탐색전략 수립	-0.339 *	-0.328 *	-0.283 *	-0.360 *
정보접근 방법	-0.310 *	-0.416 *	-0.301 *	-0.376 *
정보의 적합성 평가	-0.286 *	-0.317 *	-0.296 *	-0.329 *
정보의 체계적 정리	-0.297 *	-0.194	-0.293 *	-0.285 *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계로 통합, 정리	-0.152	-0.129	-0.247 *	-0.180
정보이용	-0.278 *	-0.087	-0.227 *	-0.218 *
인용	-0.263 *	-0.225 *	-0.311 *	-0.285 *
저작권	-0.319 *	-0.193	-0.388 *	-0.320 *
전체	-0.468 *	-0.385 *	-0.500 *	-0.493 *

* p<0,05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관계 계수는 -0.493로 사회과학에서 용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05$). 즉, 정보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측정 항목별로 보면, 탐색전략 수립과 정보접근 방법에 자신감이 클수록,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고, 탐색전략 수립, 정보접근 방법, 정보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보접근 방법, 인용, 저작권에서의 자신감은 안락함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우월함을 느끼는 것은 도서관 불안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선택 예정인 전공별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할 예정인 학생들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관계 계수가 -0.515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상관관계가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인식, 정보접근 방법, 정보의 적합성 평가 영역에서 도서관 불안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보를 잘 다룰 줄 안다는 자신감이 도서관 불안을 극복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요인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인식, 정보접근 방법, 정보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인지 수준이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문학을 전공할 예정인 학생들은 상관관계 계수 -0.355로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감이 감소하는

<표 7>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상관관계 분석 -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안락함	전체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인식	-0.352*	-0.342*	-0.445*	-0.414*
정보의 필요성 인식	-0.277	-0.123	-0.375*	-0.284*
정보원 이해	-0.213	-0.183	-0.275	-0.269
탐색전략 수립	-0.193	-0.215	-0.249	-0.243
정보접근 방법	-0.0310*	-0.505*	-0.396*	-0.430*
정보의 적합성 평가	-0.394*	-0.365*	-0.434*	-0.434*
정보의 체계적 정리	-0.171	-0.009	-0.146	-0.113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계로 통합, 정리	-0.101	-0.163	-0.249	-0.169
정보이용	-0.280	-0.144	-0.252	-0.242
인용	-0.276	-0.316*	-0.367*	-0.339*
저작권	-0.214	-0.057	-0.378*	-0.220
전체	-0.450*	-0.398*	-0.590*	-0.515*

* $p < 0.05$

〈표 8〉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상관관계 분석 - 국문학 전공 예정자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안락함	전체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인식	0.225	0.283	0.242	0.277
정보의 필요성 인식	-0.154	-0.111	0.015	-0.113
정보원 이해	-0.324*	-0.375*	-0.118	-0.332*
탐색전략 수립	-0.326*	-0.424*	-0.165	-0.364*
정보접근 방법	-0.264	-0.317*	-0.145	-0.286
정보의 적합성 평가	-0.152	-0.209	-0.115	-0.183
정보의 체계적 정리	-0.290	-0.262	-0.330*	-0.318*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계로 통합, 정리	-0.116	-0.032	-0.198	-0.112
정보이용	-0.351*	-0.112	-0.216	-0.258
인용	-0.062	-0.073	-0.091	-0.080
저작권	-0.246	-0.183	-0.295	-0.258
전체	-0.359*	-0.309*	-0.266	-0.355*

* p<0.05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보다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의 경우,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여 스스로 낮게 평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우선 A대학의 99명의 인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활용능력의 인지 수준을 정보이용자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설정하고, 스스로 평가한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에 따라 도서관 불안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 응답

자들이 향후 선택할 전공에 따라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은 3.72점으로 유사한 환경의 이전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할 예정인 응답자는 3.69점, 국문학을 전공할 예정인 응답자는 3.76점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응답자의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이들이 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 응답자의 도서관 불안 수준은 2.47점으로 유사한 조건의 이전 연구보다 측정 점수가 낮아서, 최근 정보이용자들이 정보환경에 친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불안요소들이 감소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소별로는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 의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전공 예정자들은 2.42점, 국문학 전공 예정자들은 2.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문헌정보학전공 예정자들이 도서관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상관관계 계수 $-0.493(p<0.05)$ 로 상당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서관 불안은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들의 경우엔 상관관계 계수가 $-0.515(p<0.05)$, 국문학 전공 예정자들의 경우엔 $-0.355(p<0.05)$ 로 문헌정보학 전공 예정자들이 정보활용능력 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문헌정보학에 대한 관심과 친숙함이 도서관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위의 분석들에 의하면, 도서관 및 정보이용 상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면, 도서관 불안 감소에 작용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접근 방법, 정보의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는 도서관 불안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이 불과 11개 문항만으로 측정되었고, 도서관 중심의 정보이용에 한정하여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정보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더욱 다양하고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심리 테스트들을 활용하여, 도서관 불안 수준간의 관계를 밝혀낸다면,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계 분석을 통하여, 밝혀낸 도서관 불안 요인들은 개인별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1학년 인문학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보활용능력이나 문헌정보학적인 노출이 최소화되어 있으면서도, 문헌정보학을 진로나 직업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더욱 다양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전공 배경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을 두루 선발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 배경에 따라서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향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불안만을 측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거점을 벗어나, 정보이용 전반에 따르는 이른바 정보 불안(information anxiety)과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나현. 2005.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 [2] 남태우, 황옥경. 2005. 도서관 불안 이론의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22(3): 71-84.
- [3]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 [4] 박주범, 정동열. 2010.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353-371.
- [5] 오의경. 2005.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6] 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3(3): 205-221.
- [7]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hicago: ACRL.
- [8]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Ph.D. diss., Wayne State University.
- [9] Brannan, Joyce A. 2003. *A Study of Library Anxiety in History and Physical Education Majors*. M.A.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 [10] Cleveland, Alison. 2004. "Library anxiety: A decade of empirical research." *Library Review*, 53(3): 177-185.
- [11] Doyle, C. S. 1992. *Development of a Model of Information Literacy Outcome Measures within Nation Education Goals of 1990*. Ph.D. diss., Northern Arizona University.
- [12] Jiao, Q. G., Onwuegbuzie, Anthony J., & Lichtenstein, A. 1996.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2): 151-163.
- [13] Jiao, Q. G., Onwuegbuzie, Anthony J., & Daley, Christine E.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Library Anx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6 895.
- [14]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1997b.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The Library Quarterly*, 67(4): 372-389.
- [15]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1998. "Perfectionism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4(5): 365-371.
- [16]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1999a. "Self-perception and library anxiety: An empirical study." *Library Review* 48(3): 140-147.

- [17]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62 079.
- [18]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2. "Dimensions of library anxiety and social interdependence: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Library Review*, 51(2): 71-78.
- [19]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2. *Anxiety Expectation Mediation Model of Library Anx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78 613.
- [20] Jiao, Q. G., & Onwuegbuzie, Anthony J. 2004.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library anxiety: The role of computer attitud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3(4): 138-144.
- [21] Kurbanoglu, S. S. 2003. "Self-Efficacy: A concept closely linked to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6): 635-646.
- [22] Maughan, P. D. 2001. "Assessing information literacy among undergraduates: A discussion of the literature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assessment experienc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2(1): 71-85.
- [23]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2): 160-165.
- [24] Neely, T. Y. 2000. *Aspects of Information Literacy: A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udy*. Ph.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 [25] Onwuegbuzie, Anthony J., & Jiao, Qun G. 1998a. "Understanding library-anxious graduates students." *Library Review*, 47(3-4): 217-224.
- [26] Onwuegbuzie, Anthony J., & Jiao, Qun G. 2000. "I'll go to the library tomorrow: The role of procrastination in library anxie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1(1): 45-54.
- [27] Onwuegbuzie, Anthony J., & Jiao, Qun G. 2004. "Information search performance and research achievement: An empirical test of the anxiety expectation mediation model of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1): 41-54.
- [28] Soham, S., and Mizrachi, Diane. 2001. "Library anxiety among undergraduates: A study of Israeli E. Ed.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 305-311.
- [29] Van Kampen, Doris J. 2003. *Library Anxiety,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Doctoral Use of the Library*. Ed. diss.,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30] Van Kampen, Doris J.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5(1): 28-34.
- [31] Van Scoyoc, Anna M. 2003. "Reducing library anxiety in first-year students."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42(4): 329-34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Na-Hyun. 2005. "Library anxiety and library anxiety scale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9-47.
- [2] Nam, Tae-Woo, & Hwang, Ok-Gyung. 2005.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71-84.
- [3] Nam, Tae-Woo, & Park, Hyun-Young. 2006. "A study on library anxiety of domestic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151-168.
- [4] Park, Joo-Bum, & Jeong, Dong-Youl.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353-371.
- [5] Oh, Eui-Kyung. 2005. *Information Literacy: Ident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to Undergraduate Students*. Ph.D. diss., Sang-Myung University.
- [6] Chang, Hye-Rhan, & Oh, Eui-Kyung. 2006.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library anxiety among academ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3): 205-221.